

## 韓國服飾의 이미지 要素가 適用된 글로벌 패션디자인 研究

李 秉 花

瑞逸大學 衣裳學科 兼任教授

### A Study of Global Fashion Design Applied with Image Element of Korean Dress and its Ornaments

Lee, Byoung-Haw

Concurrent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il College

#### Abstract

As the whole world is rapidly becoming hollow connected by networks, the fashion world in the 21st century is about to mould the identity of one's own country by establishing image of one's own country and originalit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n the development of designs in order to making the image of Korean dress and ornaments firmly in the global fashion by grafting and applying the elements of Korean dress and ornaments to the modern fashion.

The method of this study consists of production of works after investigation of the images of Korean dress and ornaments applied to the modern fashion or detail elements in the Korean research papers and works. The elements of images of Korean dress and ornaments which used for the production of works like Dongjeong, Baerae, Dangeu doryeon, Chima heori, Goreum, Jeogori, Euryeyong chima, Saegdong, Jogakbo, Jatmullim, Geumbakseuran are made of use as motives, and one or several mixed elements are designed in a work.

The result of the production of work is as follows :

First, the design which made use of the element of Chima jegori make strong image of Korean dress. And by grafting several elements to one work, the more strong Korean image was created.

Second, in the design which made use of ornaments and detailed decoration method, ideas are offered for detailed design skills. The materials which was investigated academically along with the study through the actual manufacturing are expected to become a foundation stone of making firm images of Korean dress and ornaments.

Key words: Baerae(배래), Dangeu doryeon(당의도련), Euryeyong chima(의례용 치마), Geumbakseuran(금박스란), Jatmullim(жат물림)

#### I. 서론

현대는 고도의 인터넷 시대로 전 세계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과정이 공동화되

어 가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디자이너들은 각기 자국의 이미지와 독창성을 찾으려면서 세계화에 동참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 즉 자국문화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타문화를 수용하고 이해하여 현대생

활과 현대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디자인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자국의 이미지를 확립시키고 개성과 독창성을 부여할 수 있는 디자인이 글로벌 패션에서 여러가지 실리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80년 후반부터 학계나 업계에서 한복의 생활화에 노력하여 왔으며 디자이너들은 한국복식의 요소를 서양패션에 접목하는 시도로 독창적 디자인 개발과 더불어 글로벌 패션에 한국적 이미지를 반영하고자 고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전통문화와 복식을 바탕으로 패션 창작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향하고 우리민족의 내·외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노력과 세계무대에서의 활약은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한복입는날의 제정과 한복 착용자의 고공 무료입장, 전통의례 행사를 통하여 우리민족의 생활 자체에서 나오는 자연스런 한복의 미를 대중에게 알리고 한복 인구의 저변 확대에 노력을 하고 있다<sup>1)</sup>. 또한 한복착용을 생활화 하자는 의미에서 생활 한복이라는 신조어로 전통복의 단점을 개선하고 실생활에 적합하도록 실용화 하려는 경향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지고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복식의 요소를 현대 패션에 접목하거나 응용하여 글로벌 패션에서 한국복식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기위한 디자인 개발에 있다. 연구방법은 한국의 전통복과 생활한복, 그리고 현대패션에 응용된 한복의 이미지나 세부적 요소를 국내 연구논문과 작품집을 중심으로 고찰한 후 작품제작을 하였다. 작품제작에 이용된 한국복식의 이미지 요소는 동정, 배래, 당의밑도련, 치마허리, 고름, 저고리, 의례용치마, 색동, 조각보, 잣물림, 금박, 버선, 스란, 땀기를 모티브로 활용하여 한 작품에 한개의 요소, 또는 여러개의 요소를 혼합하여 디자인하였다. 소재는 한국적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는 수직실크와 노방실크, 옥사등을 사용하였으며, 구성법은 한복구성법인 평면재단과 서양복의 입체구성법이 혼용되었다. 봉제는 끼끼 봉제(삼중 봉제법)를 혼용하였으며, 동·서양의 이중적 구성 요소를 가지고 제작된 작품이 미래 지향적인 글로벌 디자인에서 한국복식의 이미지를 확고히 할 수 있는 초석이 되리라 기대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한국복식의 이미지

복식의 이미지는 복식 자체의 형태, 색상, 소재, 문양, 장식등 시각적인 요소들로 형성되는 이미지를 말하며 착용된 상태에서 착용자의 특성과 복식전체, 혹은 복식 부분과의 관계에 의한 지각으로 의복 요소 뿐만 아니라 장식적 요소까지 포함하여 형성되는 분위기라 할 수 있다<sup>2)</sup>.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복식의 이미지는 외형적 형태에서 나타나는 조형미와 민족 정서 속에 내재되어 나타나는 잠재미가 동시에 표출되어 독특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으로 자연스런 생활사에서 우리나라는 부드럽고 편안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이미지의 근간을 이루게 한다<sup>3)</sup>. 더욱이 외형적 형태에서 직선과 곡선이 평면으로 구성되어 여유로운 실루엣의 자태를 형성하며 나타나는 곡선의 이미지는 은은한 생동감과 울동감을, 직선은 곧고 강한 이미지를 형성한다. 또한 색상에서 운유한 난색과 강한 한색의 대비로 미묘한 색상조화를 이루어 우리만의 색채와 아름다움이 내재되어있고 고요한 정지 속에서 보이는 역동적인 선의 묘미와 음양오행 사상과 불교의 사상은 소박, 담백, 그윽함을 표시하는 여백의 묘미, 청순하고 섬세한 여성미, 부드러운 곡선의 미와 흘러 내리는 치마폭의 자연미는 우리민족이 내재하고있는 여유 있는 선의표현과 공간에 대한 선호, 간결미를 나타내는 정서라 할 수 있다<sup>4)</sup>. 이같은 복식 이미지 중 외형적 형태 이미지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여성복식인 치마와 저고리는 한국복식을 대표하는 것으로 그 형태와 이미지를 현대적 감각으로 응용하여 창의적인 글로벌 패션디자인에 많이 애용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한국복식의 현대화에 관한 이미지 추구를 살펴보면 다음과같은 부류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한복의 형태를 많이 유지하면서 구성법 또한 한복의 구성기법에 의존하여 구성하되 현대 생활에 불편하지 않도록 넓은 폭을 줄이거나 축소하여 한복의 이미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한국의 특징적 요소를 활용하기 위하여 형태, 색채, 문양, 소재, 장신구를 현대적 감각으로 변형하거나 현대

패션의 디테일로 응용하는 것이며, 세 번째 단계는 미적 가치의 현대적 표현방법을 전통적인 한국적 가치와 요소를 한복에 현대적으로 활용하여 추상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이다<sup>5)</sup>. 이처럼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하여 한국복식의 이미지를 글로벌 패션에서 확고히 하려면 서구의 것과 한국적인 것 사이의 관계 뿐 아니라 동양적인 것과 한국적인 것 사이에서의 혼돈<sup>6)</sup>을 야기하여서는 안되며, 한국적인 바탕 위에 서구적인 것을 소화하여 현대적으로 재창조하려는 차원에서 한국적 이미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 되어야한다. 한국복식의 이미지를 위하여 전통복식의 세부적인 요소로 가장 많이 응용되는 치마와 저고리, 선과 형태, 장신구와 장식기법을 중심으로 한국복식의 이미지를 파악하여 보았다.

### 1) 저고리

저고리는 한국의 이미지를 가장 많이 내포하고 있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그 형태를 세분화 해보면, 길, 소매, 깃, 섹, 고름, 동정, 끝동, 견마기로 구성되어 있으나 생활한복에 자주 이용되는 저고리<sup>7)</sup>의 형태 중 깃은 직령 교입식, 함입, 곡령, 이중 깃, 목판깃, 칼깃, 당코깃이 이용되고, 소매는 직 배래인 대수, 통수, 착수, 곡 배래, 원삼이나 활옷과 같은 두리 소매와 언번런스한 여밈, 고름이 한국복식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 2) 치마

한복의 치마는 전개형으로 겹겹이 착용할 수도 있고 여여진 사이로 속옷이 드러나기도 하며 풍성하고 여유있는 형태감과 울동적으로 접어 올린 곡선, 비규칙적인 비례감과 다양한 장식태<sup>8)</sup>의 연출이 가능하다. 수평적 치마허리와 끈, 상박하후의 형태, 슬림한 직선을 형성하는 잔주름, 여유로운 길이와 풍성함, 대란·스란치마, 앞을 접어올린 의례용 치마, 상고시대의 긴 플리츠 치마, 쓰개치마, 대수, 무지기 치마등이 여유로 우면서도 우아한 자태로 현대패션과 접목되고 있다.

### 3) 선과 형태

전체적인 실루엣을 형성하는 선은 곡선과 직선의

만남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곡선으로는 저고리와 바지의 배래, 당의 밑도련선, 버선의 코, 저고리의 섹코, 둥근 깃머리 등이며, 직선은 슬림한 치마의 흐르는 듯한 직선과 상박하후의 사선, 늘어진 고름, 수평적 치마허리, 진동선, 차마폭의 연결선이 이루어내는 선과 형태<sup>9)</sup>의 이미지는 한국복식만이 간직한 부조화의 조화를 이룬다.

### 4) 장신구 및 장식기법

한복의 부속품인 장신구는 한복의 착장미를 완성시켜주는 것으로 족두리, 땡기, 조바위, 아얌, 갓, 노리개, 주머니, 토시, 붓짐, 비녀, 머리장식이 이용됨으로서 그 이미지를 더욱 강조하게된다<sup>10)</sup>. 최근에는 복식의 형태적 요소뿐만 아니라 장식기법이나 봉제법이 한국의미를 나타내는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면과 면이 이어지는 사이에 넣는 파이핑선, 누비, 엮기, 조각보, 자수, 금·은박, 웅배, 보, 께기바느질(삼중 바느질), 잣물림과 같은 공예적 장식을 가미하면서 내면적 상징의 의미를 부여하는 주술 및 토tem적 사상을 드러내는 십장생 문양과 같은 장식도 한국복식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 2. 현대패션에 표현된 한국복식의 요소

현대패션에 나타나는 한국복식의 요소는 형태적 특성과 세부적 요소를 활용하여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한국 복식미를 보다 현대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한국복식의 요소를 한 작품에 하나의 요소에서 여러개의 요소를 적용하여 디자인함으로써 전통적인 고유양식의 재현에서 벗어나 형태는 서양복식이지만 '한국적 이미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다<sup>11)</sup>. 국내패션 디자이너의 작품을 보면 한국적 이미지를 창조하기 위하여 다양한 복식요소를 혼합하여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하거나 형태와 선, 장식적 공예를 이용하여 한국복식의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가장 많이 활용되는 복식은 치마와 저고리 형태로 우리의 이미지를 강하게 대변하고 있으나 점차 다양한 구성 요소가 활용되고 있다.

1) 저고리형 요소의 응용

〈그림 1〉은 설윤형의 작품으로 상의는 저고리의 목판깃과 소매에 토시를 응용하였고 짧은 저고리의 길이를 연상케하는 디자인과 치마끈이 고름처럼 상의 아래로 늘어져 수직과 수평의 만남을 형성하며, 하의는 허리라인에 이중적 치마허리를 하고 귀주머니와 규방용품이 달린 장식 끈으로 여밈으로서 한국복식의 이미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 작품은 한벌의 실루엣에 여러개의 한복 구성요소가 활용되었다.

〈그림 2〉는 대수 중에서 원삼이나 활옷, 도포 종류의 소매인 두리 소매와 쌍 깃을 응용한 작품으로 소재는 실크와 모시를 직사각형의 조각보 잇기로 구성하였으며, 하의는 슬림한 한복치마의 유연한 흐름을 나타내면서 한국복식의 이미지를 예술적으로 표현하였고 족두리와 큰 비녀의 연출이 더욱 고고한 이미지를 표출하고 있다.

〈그림 3〉은 언밸런스한 상의로 이루어진 현대적 원피스에 색동의 숄더와 당의의 도련선이 원피스 내부



〈그림 1〉 설윤형, '95, A/W, SFAA Collection, p.50.



〈그림 2〉 채금석, '98, ICA Costume Exhibition, p. 80.



〈그림 3〉 이병화, '99, SETEC Ready to Wear Collection, p. 67.



〈그림 4〉 이병홍, '98, ICA, Costume Exhibition, p. 51.



〈그림 5〉 이병화, '00, 제1회 전통한복 콘테스트 입선작

에서 드러내므로 인하여 차분한 회색의 드레스 이면에 강한 원색의 색동이 어우러져 전체적인 분위기는 한국적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는 작품이다. 형태적으로나 구성법 모두가 서양복의 방식으로 제작되었으나 색동과 당의의 도련선이 한국복식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는 한지로 제작된 작품으로 저고리 배래의 곡선과 슬림한 직선라인의 치마, 그리고 수직으로 내려진 고름형태의 리본장식이 직선과 곡선의 만남을 이루며, 형태는 현대의상에 가깝지만 백색 위에 드러나는 금박 문양의 이미지는 우리의 정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5〉는 디바이드 스커트의 미들립 라인에 한복 치마주름으로 디자인한 원피스에 자켓을 착장 시킨 작품이다. 자켓은 서양복의 입체 구성법에 저고리의 깃과 셔를 디자인하고 깃과 셔선, 등술기에 색동의 파이핑선 장식과 끼개 봉제(삼중 바느질)로 제작된 것으로 한복 소재인 옥사실크와 고름 장식이 적용된 작품이다.

## 2) 한복치마 요소의 응용

〈그림 6〉은 넓고 풍성한 한복치마에 수평적 치마허리가 상의역할을 하는 원피스에 솔과 함께 디자인된

작품이다. 치마에 기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매어주던 허리띠를 노리개가 달린 끈으로 연출하여 우아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한복 소재인 실크 노방 위에 프린트된 흑색의 문양이 안정감과 여유로움을 표출하는 것으로 한국복식요소로 치마와 노리개, 솔이 응용되었다. 이 작품은 서양복 형태에 한복의 이미지만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한복의 형태구성을 현대적 느낌을 주면서 한국적 이미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그림 7〉은 한복의 치마허리를 이용하여 색색의 조각보 잇기를 이용하여 평면적 직선으로 상의를 이루고, 여밈을 저고리 고름형태로 디자인하고 좁은 치마폭과 치마끈을 늘어뜨려 현대화한 작품이다. 한국복식요소로 치마허리, 고름, 치마끈, 조각보가 응용되었다.

〈그림 8〉은 스란치마를 응용한 작품으로 은박 스란이 상의와 문양적 통일감을 고려한 것으로 허리에는 과거에 미혼여성이 땀아 내린 머리에 장식하던 땀기를 고름처럼 매어 포인트를 준 작품이다. 색상에서도 한복에 자주 사용하는 옥색과 핑크색 위에 은박 요소로 디자인하였다.

〈그림 9〉는 슬림한 긴 치마에 흰색의 노방으로 저고리의 도련과 배래에 나타나는 곡선을 응용하여 리듬감을 표현한 디자인에 긴 고름장식이 한복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그림 6〉 장광옥, '01, 성신여대 졸업작품전



〈그림 7〉 설윤형, '97, S/S, SFAA Collection, p. 27.



〈그림 8〉 설윤형, '96, S/S SFAA Collection, p. 145.



〈그림 9〉 정성혜, '98, ICA, Costume Exhibition, p. 36.

### 3) 장신구 요소의 응용

〈그림 10〉은 한국복식의 장신구인 귀주머니를 모티브로 형태적 특징을 나타내는 작품이다. 의복 상의의 전체적 실루엣을 하나의 귀주머니 형태로 제작된 독특한 의상이다. 흑색의 공단에 빨간색 코사아지와 컬러플한 나비장식이 화려함을 더해주며, 두줄의 매듭노리개가 귀주머니의 멋스러움을 담고있는 디자인이다.

〈그림 11〉은 흑색의 양전한 상의 목선을 저고리의 깃을 응용한 바이넥크와 과장되게 연번랜스한 여밈에 삼색의 매듭단추를 여러개로 디자인하고 주머니를 솔더백의 장신구로 활용함으로써 한국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그림 12〉는 의상자체에 한국복식의 요소가 적용되었다기 보다는 한지의 장신구 함을 천으로된 끈으로 등에 매어, 한국정서에서 장거리 외출시 붓짐을 지고 가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한국적 이미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림 13〉의 작품은 흑색의 새틴과 실크 쉬폰으로 제작된 드레스로 풍성한 치마를 접어 올려 긴 노리개로 장식 포인트를 준 디자인으로 길게 늘어진 화려한 노리개가 부조화 속의 조화를 이루어내어 한국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 4) 기타 장식 및 공예 요소의 응용

〈그림 14〉는 한국정서의 놀이 문화에서 사용하던 딱지 접기의 화려한 문양 위에 금·은박의 문양이 프린트되어 조각조각 이어서 디자인한 수공예의 느낌을 주는 디자인이다. 또한 의복과 맞추어 육각의 지함 공예 연출은 전통공예의 요소가 응용되어 나타나는 한국적 이미지로 표출되는 작품이다.

〈그림 15〉는 모시의 드레스에 색동으로 장식한 작품으로 모시는 전통적으로 애용해온 자연 친화적 소재이고 색동은 자연의 빛을 의미하는 원색을 사용하여 자연에서오는 편안함과 자연으로의 동화됨을 느끼게 한다<sup>2)</sup>. 또한 규방도구인 골무로 숟기마다 입체적으로 연출하고 색동의 끈을 꼬아 정성스레 엮어내린 뒷모습에서 한국여인의 화려하면서도 섬세한 여성의 손매무새의 표현과 간절함을 기원하는 주술의 의미로 우리민족의 내면을 표현하고 있는 듯 하다.

〈그림 16〉은 공예의 기교로 보이는 컬러플한 스커트와 상의의 촘촘한 누빔을 조각 잇기로 패치워크 한 다음 프린트 문양의 방향을 다르게 매치하여 디자인함으로써 규방 여인의 정성과 예술성을 엿볼 수 있는 느낌이 들도록 한 작품이다.

〈그림 17〉은 토시를 포인트로하여 상의는 사선의 킨팅을 이용하여 소재에서 오는 포근함과 가장자리에 흑색의 선장식 위에 목단의 자수와 토시의 자수에서 통일



〈그림 10〉 공미순, '98, ICA, Costume Exhibition, p. 113.



〈그림 11〉 설윤희, '95, A/W, SFAA Collection, p. 50.



〈그림 12〉 설윤희, '95, A/W, SFAA Collection, p. 51.



〈그림 13〉 박미량, '98, ICA, Costume Exhibition, p. 60.



〈그림 14〉 설윤형, '95, A/W, SFAA Collection, p. 43.



〈그림 15〉 유승복, '97, Kwangju Biennale, p. 52.



〈그림 16〉 설윤형, '95, A/W, SFAA Collection, p. 42.



〈그림 17〉 이동신, '01, 성신여대 졸업작품집 p. 42.

단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옆선은 트고 하나의 끈으로 여렸고, 치마는 상박하후의 실루엣을 형성하면서 단아한 한국적 이미지가 내포된 복식으로 소재에서 더욱 한복의 이미지가 돋보이도록 디자인 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토시와 상의의 누빔, 자수가 공예적 느낌을 주는 것으로 차분하고 꼼꼼한 여성의 내면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한복의 구성요소를 응용하여 독창적인 디자인 개발에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복식의 종류는 무척 다양하지만 가장 많이 활용되는 요소는 한복의 치마 저고리와 당의도려선, 색동, 금·은박, 한복소재, 문양, 노리개 등 몇 개의 장신구가 한정된 요소로 활용됨을 볼 수 있다. 좀더 다양한 종류의 복식을 분석하여 활용한다면 신선한 아이디어로 글로벌 패션에 우리복식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 III. 작품제작

#### 1. 작품 제작 의도

작품은 여성복 위주로 제작하였으며 소재는 한복에 많이 사용되는 수직실크와 노방실크를 사용하여 한국복식의 치마저고리에서 구성되는 저고리의 배래선, 깃과 동정, 고름, 여밈형태, 당의 밑도려, 치마허리와 같은 한복의 요소를 현대 감각으로 디자인하였고, 색동,

조각보, 잣물림, 금박, 스란, 도투락댕기, 버선과 같이 한복에 많이 등장하는 장신구와 장식기법의 요소를 이용하여 현대패션으로 구성하면서 한국적 이미지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구성법도 한복의 평면적 재단법과 현대 의복구성의 입체적 구성법을 혼용하였고 봉제기법도 한복 봉제의 특징인 깨기 바느질(삼중 봉제)법을 혼용하여 작품제작을 하였다. 소재의 제한성과 강한 색상 매치에서 오는 다소 부자연스러울 수 있는 이 디자인이 미래지향적인 글로벌 디자인에서 한국복식의 이미지를 확고히 할 수 있으리라 본다.

#### 2. 작품해설

##### ◆ 작품 1

- 구성 : 원피스
- 소재 : 노방실크
- 색상 : 흰색, 노랑색, 핑크색
- 복식요소 : 조각보
- 작품해설

이 작품은 하이 웨이스트에 슬림한 슈미즈 드레스로 스커트부분을 전통 조각보에 나타나는 패치워크를 이용하여 현대적으로 디자인하였다. 상체 부분은 두겹의 흰색 노방사이에 여러 가지 색상의 천을 직사각형으로 자른후 가장자리의 사방을 풀기를 한 다음 색상

을 배열하고 퀴팅하여 새로운 텍스타일을 조성하는 기법으로 한복의 얼비침 색상(각기 다른 색이 겹침으로 생겨나는 새로운 색)을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스커트는 흰색, 노랑색, 핑크색을 서로 엇갈린 사선으로 절개한후 연결하였고 안감은 여섯개의 폭을 세가지 색상을 반복하여 연결한 후 겉감의 상·하단 색상과 매치되도록 하여 더 많은 색상(9색)이 연출되도록 구성한 작품이다. 이것은 현대패션에 많이 제작되는 간결한 슈미즈 형태의 디자인에 조각보 잇기와 얼비침 색상의 이미지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 작품 2

- 구성 : 원피스, 숄
- 소재 : 노방실크, 수직실크
- 색상 : 남색
- 복식요소 : 치마허리, 잣물림, 타래버선
- 작품해설

한복 치마허리를 변형하여 디자인한 작품으로 치마허리의 수평라인에 규칙적인 턱크 접기를 하고 어깨 끈을 가늘고 강한 삼색(초록, 핑크, 남)으로 디자인하여 현대감을 주었으며 롱 스커트와 연결되는 사이에 초록색, 노랑색, 핑크색으로 잣물림 장식을 하였다. 드레스 중앙의 큰 맞주름은 한복 저고리의 긴 고름을 연상하였으며 흰색의 타래버선 형태로 포켓 디자인을 하고 입체적 봉제로 실용성과 편리성의 효과를 주었다. 과거 한국사회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수 있는 타래버선의 접목은 장식적 포인트와 실용적 포켓의 이중적 사용가치를 부여하고 얇은 사의 솔은 더욱 여성스러움을 강조하고 있다.

◆ 작품 3

- 구성 : 드레스
- 소재 : 노방실크
- 색상 : 흰색, 핑크색
- 복식요소 : 금박스란, 도투락 땡기
- 작품해설

이 작품은 특별한 날의 의상으로 약혼식이나 웨딩 후 애프터 드레스용으로 제작되었다. 흰색과 엷은 핑크 노방실크를 웨딩드레스 형태로 제작한 후 전통복

식의 치마에서 보여지는 스란과 도투락 땡기에 금박을 직금하여 현대적 드레스로 제작하였다. 상체부분은 긴 테이프 형태로 제작하여 바이어스 방향으로 엮는 기법(interlacing)을 이용하였고 늘어진 테이프의 일부분을 말아올려 입체적인 볼륨을 준 디자인이다. 금박 스란과 도투락 땡기가 차분한 여성미를 살리고 한복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예술의상으로 표현하였다.

◆ 작품 4

- 구성 : 원피스
- 소재 : 수직실크, 노방실크
- 색상 : 엷은노랑색, 핑크색
- 복식요소 : 당의밑도련, 색동, 배래, 보
- 작품해설

이 작품은 한국복식의 여러 가지 요소가 어우러진 드레스로 언밸런스한 색동의 솔더에서 이어지는 직선라인과 스커트의 곡선적 라인은 저고리의 배래선과 플리즈 스커트 사이로 내려진 당의의 도련선은 한복의 요소이다. 이 요소를 현대 서양복 구성에 접목하고, 당의 도련선 위에 디자인된 삼죽용의 자수보는 한국복식의 이미지를 충분히 표현하고 있다.

◆ 작품 5

- 구성 : 원피스
- 소재 : 수직실크
- 색상 : 짙은 녹색
- 복식요소 : 색동, 배래
- 작품해설

이 작품은 무대의 주인공 의상으로 현대사회에서 이벤트나 공식행사에 착용하는 드레스로 디자인하였다. 원 솔더의 심플한 드레스를 파격적 커팅 라인과 그 사이로 드러나는 색동, 그리고 스커트의 트임 라인에서 보여지는 직선과 곡선라인의 색동으로 한복의 이미지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짙은 녹색 사이로 이어지는 가슴선의 색동은 강한 색상 매치에서 오는 부자연스러움을 배제하고자 소재를 공예적으로 디자인하였다. 다양한 색상의 소재를 색동으로 봉제한 후 흰색의 노방실크 위에 불규칙적인 창을 내고 울 플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장자리를 접어서 숨은상침(겉으로 드



러나지 않게 하는것) 바느질을 하여 열비치는 색상과 원색이 어우러져 나타나면서 강한 녹색과의 조화를 이루게 한 디자인이다. 이 작품은 현대의상이면서 색동과 곡선에서 표현되는 미묘한 한국의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

◆ 작품 6

- 구성 : 투피스
- 소재 : 수직실크
- 색상 : 빨강색, 짙은남색



<작품 1>



<작품 2>



<작품 3>



<작품 4>

- 복식요소 : 고름, 깃과 동정, 배래, 선장식, 매듭장식, 금박

•작품해설

이작품은 저고리의 깃과 쉼, 배래, 끝동이 형태상으로 한복의 저고리와 유사하지만 구성은 서양복 제작에

이용되는 입체구성으로, 앞길부분은 소매선으로 이어지는 프린세스 다아트와 소매산이 디자인되어 제작된 작품이다. 하의는 뒷 중심에 슬래쉬가 있는 롱 타이트 스커트로 앞중심에 적색의 고름 장식선을 늘어뜨리고 금박을 직금하였다. 이것은 짙은 남색에 적색을 사용



<작품 5>



<작품 6>



<작품 7>



<작품 8>

하여 대비색에서 오는 강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저고리의 요소가 많이 활용되어진 작품이다.

#### ◆ 작품 7

- 구성 : 원피스, 숄
- 소재 : 수직실크
- 색상 : 빨강색, 짙은남색
- 복식요소 : 귀주머니, 노리개술
- 작품해설

이 작품은 숄더가 가는 두 줄의 끈으로 연결된 원피스로 스커트 하단을 스칼럽 선과 양옆에서 시작된 저고리의 배래선이 뒤로 모아져 중심에서 정점을 이루는 곳에 숄 장식을 하였다. 이 의상의 구성법이나 실루엣은 현대적 서양복 이지만 스커트 뒷중심 끝에 달린 숄 장식과 앞 중심 상체에 여머진 술장식 브로치가 대칭의 조화를 이루고 앞 중심에 늘어진 귀주머니가 달린 긴 노리개 술이 한국복식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귀주머니는 수직실크를 직사각형으로 재단하여 안쪽에 접착 심지를 붙이고 종이접기 방법으로 제작하였고, 숄의 안은 적색으로 겉과 대비되는 색상 조화로 양면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것으로 원피스와 함께 착용하면 정갈한 여인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한복의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표현 하고자한 작품이다

#### ◆ 작품 8

- 구성 : 투피스
- 소재 : 수직실크
- 색상 : 엷은노랑색, 핑크색, 옥색
- 복식요소 : 중세치마와 저고리
- 작품해설

이 작품의 이미지는 한복치마 저고리의 이미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치마는 전통복식 중 의례용 치마에서 이미지를 얻어 디자인한 것으로 한복의 통치마와 같은 방법으로 제작하고 치마끈을 매어 늘어뜨리는 장식효과를 주었다. 상의의 칼라는 넓은 숄 칼라를 반으로 접어 저고리 깃과 같은 이미지로 여길 수 있고 앞 중심에서 여머진 서양복의 숄 칼라형태로 변형이 가능하도록 디자인되었다. 이 작품은 색상이나 구성면에서 한복의 이미지를 강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새 신부의 나들이 의상으로 제작된 것이다.

## IV. 결 론

한국복식의 양식은 우리민족이 오랫동안 착용하여 온 생활양식으로 자연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편안함과 여유로움 속에서 우리나라의 독특한 이미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이미지는 글로벌 패션에서 독창적인 디자인과 함께 우리의 정체성 확립에 유리하므로 우리만이 소유하고 있는 다양한 복식의 요소를 찾아내어 연구하고 작품제작에 적용하는 시도로 활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대생활에서 적용되는 생활복에 한국복식의 요소를 적용하여 한복의 이미지가 나타나도록 하는 의미에서 평상복, 외출복, 행사복, 의례복 등 다양하게 디자인하였다. 이같은 작품제작을 위하여 현대복식에 한국복식의 형태나 이미지를 도입한 복식 문헌과 작품사진을 중심으로 고찰한 후 8점의 작품을 제작하였다.

이상의 연구과정을 토대로 얻어진 결과와 작품제작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치마저고리의 요소를 이용한 디자인이 한복의 이미지를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문헌과 사진 자료에서 보았듯이 작품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한국복식의 여러 가지 요소를 한 작품에 접목시킬 때 더욱 한국적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었다.

둘째, 선과 형태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는 직선과 곡선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대비적 조화에 의하여 슬림하면서 흐르는 듯한 직선과 풍부한 곡선의 여유가 부조화속에서 미묘한 조화미를 나타내고 있었다.

셋째, 장신구와 장식기법을 이용한 디자인에서는 사진자료에서 보여진 이미지보다 연구자의 작품에서는 강한 이미지 보다는 세부적 디자인 구성의 아이디어 제공에 국한되는 듯 하였다. 이것은 치마 저고리처럼 자주 보여지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으로 해석 되므로 더욱 개발의 여지가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하면 글로벌 디자인에서도 폭넓은 한국적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을것이다.

본 연구에서 현대복식에 전통복식의 이미지를 적용

하는 시도는 한국의 이미지와 독창성을 확립하고 글로벌패션에 동참하면서 우리의 위상을 높이는 길이며, 이제까지 학문적으로 연구된 자료를 실물제작을 통하여 나타나는 이미지를 실제로 제작하면서 연구하면 가까운 미래에 우리의 복식 이미지가 글로벌 패션을 리드할 것으로 여겨진다.

### 참고문헌

- 1) 강순재, 황의숙, 남윤자, 홍나영, 여자한복의 기성복화를 위한 패턴개발; 20대를 중심으로, 복식, 제44호, 1999, pp. 77-89, p. 78.
- 2) 김희정 · 이경희, 동양적 복식디자인의 특성과 이미지 연구(제2보);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4(3), 2000, pp. 313-322, p. 314.
- 3) 윤보연, 배수창, 현대패션에 반영된 전통 미의식의 연구; 한국과 일본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한국패션 비즈니스학회지, 5(4), 2001, pp. 56-72, p. 59.
- 4) 채금석, 생활한복 모형개발 연구(I), 복식, 제46호, 1999, pp. 109-131, p. 113.
- 5) 이정수, 송명경, 한복을 응용한 혼례복 디자인에 관한 연구, 복식, 제49호, 1999, pp. 137-157, p. 143.
- 6) 김인경, 파리컬렉션에 나타난 한국적 패션 디자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 제 38호, 1998, pp. 233-244, p. 235.
- 7) 심화진, 생활한복에 나타난 전통한복의 고유미의 재현; 기본복(저고리, 바지, 치마)을 중심으로, 생활문화연구 제13집,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연구소, 1999, pp. 1-42, pp. 21-22.
- 8) 이춘희, 현대패션에 반영된 한국적 이미지의 의미 분석, 복식문화연구, 8(4), 2000, pp. 562-576, p. 54.
- 9) 김찬주, 장인우, 한국 현대패션에서의 한국적 디자인 전개과정 분석과 세계화를 위한 제안, 복식, 제48호, 1999, pp. 5-24, p. 10.
- 10) 앞글, p. 115.
- 11) 김인경, 앞글, p. 235.
- 12) 이춘희, 앞글, p. 55.